

시장경제논리와 지역교회

‘시장경제논리’가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지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 다음날 한국의 신문들과 방송들이 일제히 연설 도중 20회나 박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숫자에 연연하는 한국 언론의 수준을 의심하면서 연설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 의원들이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그 동안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시장 문턱이 높았는데 이제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턱을 완전히 낮추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깃발이다.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통치 이념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시장경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통치 이념이 성경적인가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주의라는 것은 한 마디로 힘있는 자는 살아 남고, 힘없는 자는 사라져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집단인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의미로, 경쟁력 있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은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반면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정리한다는 정신이다. 존재 자체의 의미보다는 효용성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 동안 한국의 산업이 보호주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자생력을 촉진하겠다는 의미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이념이야말로 경계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원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온 미국이나 서구 사회를 보면 20%의 가진 자와 80%의 갖지 못한 자의 소득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면 500대 기업만 살아 남고 나머지는 종속되거나 퇴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지구상의 3/1의 사람들이 시장경제 논리에 밀려서 풍부한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증이다. 사실 IMF의 출현도 시장경제논리 때문이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는 IMF시대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미국자본주의 주도로 세계를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는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IMF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그 나라의 경제구조나 생활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어 세계시장에 편입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자급자족적 지역사회 경제시스템이 세계시장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주의는 자본이 자기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근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의 실업률이 12%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 대통령의 미 의회에서 시장경제주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거대한 자본주의 압력 앞에 항복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실업자로 내 몰릴 것이며,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실업자가 150만을 넘어섰고, 서울 시내 노숙자만도 2,000명이 넘어섰다. '가난이 현관에 들어서면 행복은 뒷문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땅 가정들마다 가난으로 인한 원망과 한숨 소리가 하늘 아래 메아리 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다가 이 땅에 사회주의 이념보다 더 투쟁적인 이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욕이오 보다 더 처절한 싸움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아직도 한국교회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지배 이념에 대한 성경적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MF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시각은 너무나 표피적이다. 기껏해야 소비절약이나 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민족주의적 감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난국을 맞아 민족을 생각하며 회개기도를 하자고 촉구는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회개하자는지 내용이 없다. 지금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운 성장제일주의라는 바알 신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바알 신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방 신들이 들어 와 있었던 상황을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라는 이념이다. 오히려 교회에서 이 이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된 체 선포되고 있다.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역교회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년 정신, 안식년 정신에 근거해서 시장경제논리를 지역교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시장 세력이나 대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열심히 땀흘리면 살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경적 모델을 제시하

는 것이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결코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제주도 이시돌 목장의 좋은 예가 있다. 맨그런치 신부가 벌써 40년 가까이 이끌고 있는 성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이시돌 목장은 그 지역 주민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 서울 등 대도시의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투자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이 대 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소자본이지만 힘을 합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구호만 회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구조를 연구하고, 지역 주민을 교육하고 조직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회년과 같은 엄격한 제도를 두신 것은 물질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 덕목인 의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교회가 지역 경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그들의 현실적 구조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억압하고 말 것이다. 지역교회가 시혜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풀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이념에 빼앗길 수 있다. 구조를 바꾸는 성숙한 섬김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구조적으로 경제 질서가 개선될 때까지 우선 쏟아져 나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실직자들에게 심신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가 빨라지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실직자들을 재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회사가 생겨날 정도이니 다행스럽다. 문제는 실직 노숙자들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어 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을 감싸며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가정이 깨어진 상태이며, 장기간 노숙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로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찬 영육이 병든 사람들이

다. 오늘 지역교회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많은 교회들이 시설이나 예산 핑계로 이 일을 꺼려하는데 만약에 한 교회가 옥상의 40평만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일년에 3천만원의 예산만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면 일년에 20명의 노숙자들을 최상의 환경에서 섬길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전국적으로 천 교회만 있다면 2만 명의 노숙자들을 지역교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다. 작지만 지역교회들이 연합할 때 이 땅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이 일을 위해서는 헌금의 주된 목적은 물질적 나눔의 실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 교회를 위한 예산 편성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그 외에 경제적 위기로 야기된 지역의 아픔을 교회들이 분담할 수 있는 일들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이나, 재택 노인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직자 또는 극빈자 가정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 진정한 회개운동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충고했던 말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단4:27) 卍